

警友會는 現職을 도와주는 組織

구홍일 경우회장, 송파署 직원 대상으로 특강



「경찰정신」이란 주제로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는 구홍일 경우회장.

구홍일 경우회장이 최근 서울 송파경우회와 송파경찰서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찰서에 도착한 구홍일 회장은 김준호 송파경우회장과 김호운 경찰서장의 영접을 받고,

서장실과 상황실에 들러 격무에 수고하는 각 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회의실에서 관내 치안현황을 설명들었다.

이어 구홍일 회장은 송파경우회에 들러 김준호 회장으로부터 경

회 운영현황을 전해 듣고 조직활성화에 애쓰는 지역 경우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구 회장은 5층 대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들에게 「경찰정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는데,

현직 및 퇴직이후의 인생경험담을 들려줘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경찰정신』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은 경찰만은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자세로 공직생활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구 회장은 현직 후배들에게 「『법외의 증감은 경찰이 뛰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성실히 일할 것』, 「항상 가족을 생각할 것』, 「외국어 공부에 매진할 것』, 「종교를 가질 것』, 「경우회는 현직 후배들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것을 염두에 둘 것』 등을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는 못하지만 이 장학금은 警友들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만큼 면학에 힘써 나라와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우장학회는 지난 78년 1월 설립된 이래 경우회에서 5억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뜻있는 警友들이 지속적으로 기금을 기탁해 온 결과 약 12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20억원 모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警友 獎學生 기대에 부응할 터

- 優秀 前 · 現職 자녀 35명에게 3천 5백만원 전달 -



문학동 경우 장학회 이사장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경우장학회가 최근 구홍일 경우회장, 문학동 장학회 이사장, 장학회 임원, 학부모 및 수혜학생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전·현직 경우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경연 학생(서울 성신여대 기약과 1학년)을 비롯해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 경우자녀 35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총 3천 5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 가운데,

최근 5천만원을 추가 기탁한 황호향 이사에게 기탁 증서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학동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젊은 시절 건국·구국·호국의 전선에서 앞장서 왔던 警友들이 뜻을 모아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그 훌륭한 뜻을 이어 받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재목들이 꼭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규정비위원회 개최

위원회를 갖고 정관, 선거관리규정, 의사규정 등 경우회 운영 관련 법규 개정

재향경우회는 최근 중앙회 임원실에서 전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법규정비

홍미영 의원 地方選舉 노하우 책으로 엮어

「아름다운 도전, 세상을 바꾸는 정치」

-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



경찰수사권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2006년 지방선거 대비실전 선거 노하우를 수록한 「홍미영 의원의 선거레터- 아름다운 도전,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펴냈다.

이 책에는 홍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물론 정치철학, 팔과 눈물로 가득한 경험담, 여러번 치른 선거를 통해 체험한 선거 노하우,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들이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인친 달동네에서 겪는 불편 부담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고 지리뛰다가 동네 사람들이 정치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위화감을 갖고 머뭇거리며, 정치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투쟁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 곳곳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

다』면서 『평범한 우리 이웃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평범한 우리 이웃 중에서 많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와 권력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라져야 많은 이들을 위한 좋은 정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이 같은 동기에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제가 인친 달동네에서 겪는 불편 부담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고 지리뛰다가 동네 사람들이 정치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위화감을 갖고 머뭇거리며, 정치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투쟁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 곳곳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

이 자연스레 지역정치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홍미영 의원. 그녀는 그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가진 것 없이 선거에 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초의원선거에 이어 두 번의 광역의원선거에도 당선되었고,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면서 『저처럼 지역운동에서 지역의회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는 아직 흔치 않은 경우지만 점점 더 이런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컨설팅 회사에서 내놓는 그럴싸한 전략적 매뉴얼 북이 나 가이 드 북은 아니지만 그간 내가 겪은 정치 경험과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서 「저의 경험을 예시 삼아 좀더 많은 분들이 정치계, 특히 선거에 뛰어들 때 꼭 필요한 용기와 전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습출판 : 02-326-1693)

- 험블레스 오블리주 - 경찰의 길을 묻다

최기문 前 경찰청장 출판기념회 성황

최기문 前 경찰청장이 지난 2월 20일 저녁 자신의 회고록인 - 험블레스 오블리주 - 경찰의 길을 묻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허성관 前 행정부 장관, 구홍일 경우회장, 이택순 경찰청장, 역대 치안총수, 내외귀빈 및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참석하여 책출간을 기념하는 한편 최 前 청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했다.

『경찰청장 22개월, 무엇을 했던가 되짚어 돌아보니 정작 내용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최 前 청장. 그러나 「다만 몇센티미터만이



최기문 前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라도 우리 경찰을 진전시키자」는 소박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축적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

실 이 22개월 보고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밝히고 있다.

「쇠파이프, 죽창」을 버리고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로만 막는 경찰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公權力이 무너지면 國家紀綱이 무너지고 亡國으로 가게 된다. -

1.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 민주국가의 경찰권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이며, 정통성이 확립된 민주국가에서 폭력시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만 들고 어떻게 막으라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보호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의 강경진압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 평화적 시위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위대의 주장을 정부와 언론, 모든 국민들이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 합니다.

2. 아직도 폭력시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발길질에도 놀라더라. 한국도 비폭력의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을 느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과잉진압 문책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동대원 명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쇠파이프와

북편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준법 평화시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준법 평화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을 넘기만 하면 가차 없는 강경진압과 엄한 처벌로 범질서를 유지하는 선진국 경찰의 준엄한 모습을 보고, 우리 경찰도 시위대도 배우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3. 전 · 의경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 전 · 의경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아 당당하게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이며, 이들을 범피 집단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쇠파이프와 갈라진 죽창으로 눈을 공격해오는 술 취한 시위대가 소름끼친다.』는 실명한 전경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 경찰에게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